form of them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ain Daejanggyeong. These subjoinders were joined by combining the Goryeo Buddhist thought and printing ability.

Key Word

Goryeo Daejanggyeong, First Goryeo edition,

Second Goryeo edition, Gyojang,

Sinpyeon Jejong Gyojangchongrok, *Sinjodaejang Gyojeongbyeollok*,

Kaibao Dazangjing, subjoinder edition

투고일자 2011.11.24 | 심사일자 2011.12.5 | 게재확정일자 2011.12.16

고려대장경,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가치*

—문화론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도흠
한양대학교

Ⅰ. 머리말
Ⅱ. 기억의 碇泊과 부처님 말씀의 위상
Ⅲ. 재현의 위기 시대에서 원본의 위상과 탈정전화
Ⅳ. 聖俗一如의 메신저
Ⅴ. 일방향소통에서 쌍방향소통의 텍스트로
Ⅵ. 민족자존의 긍지/국수주의적 신화에서 차이와 혼성성의 의미 부여로
Ⅶ.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 HYU 연구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연구되었음(HYU-2011-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연구사업단)

요약문

중세 농업사회에서 조성된 대장경이 1,000여년의 시공간을 지나 지금 여기, 디지털 사회에서 갖는 의미, 나아가 미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문화론적 해석을 하였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의 기억, 聖衆의 기억을 거쳐 문자로 기록되면서 기억의 碇泊이 시작되었다. 한역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한데 모아서 잘 정박시킨 유일한 큰 그릇으로서 위상을 누리며, 고려대장경은 한역대장경 가운데 '온전하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대장경이라는 가치를 갖는다. 석가모니의 말씀과 경전텍스트와 해석은 일치하지 않는다. 언어 자체의 한계성, 참조체계, 이를 인식하고 느끼는 인간 몸의 메커니즘, 구조와 형식, 이데올로기, 코드체계 등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이 차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며, 진리 또한 그 '사이에' 있다.

원본이 사라지고 복사본이 이를 대신하고 현실을 가상, 혹은 시뮬라시옹이 대체하는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 시대에서 고려대장경은 시뮬라시옹이 침해할 수 없는 원본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갖는다. 21세기에 와서 고려대장경은 다양한 복사본을 낳는 샘의 구실을 할 것이다.

고려대장경과 관련된 의례는 聖俗의 합일을 매개하는 매체다. 대장경에 관련된 스님과 고려 민중의 지극한 신심을 자기화할수록, 너와 나의 구분을 무너트리고 我慢에서 빨리 벗어나기에, 대중들은 불교의례를 통하여 자아와 타자의 공존을 추구하게 되고, 참여자들은 자연스레 탈구조공동체(communitas)를 지향하게 된다.

21세기에는 고려대장경은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쌍방향의 소통을 할 것이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경계는 무너지고 무수한 하이퍼텍스트들이 소셜 네트워크망을 통해 인드라망처럼 서로 끊임없이 전달되고 해석되고 만들어질 것이다.

팔만대장경은 민족 자긍심의 바탕이었지만 그에 관련된 신화는 이제 제거되고, 차이의 관점에서 팔만대장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대장경은 한 나라의 단위에서는 민족적 긍지감을 높일 국력과 문화와 지식권력의 상징이지만, 동아시아 지평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식 교류와 소통의 산물이자 세계화 시대에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전범이다.

대장경의 부처님 말씀만이 아니라 고려대장경을 만들며 얽힌 이야기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전) 텍스트다. 이는 시간을 뛰어넘어 1,000년 뒤 오늘에도 풍성한 의미와 벅찬 감동을 준다. 이는 경전에 대한 부재-텍스트가 되어 현전-텍스트인 경전과 서로 不一不二의 연기관계를 형성하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텍스트성의 의미를 생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의미들은 우리 삶에 지표를 제시하고, 어느 때는 삶을 전환하는 지평을 펼칠 것이다.

주제어

대장경, 고려대장경, 문화론, 기억의 정박, 재현의 위기, 시뮬라시옹,

글로컬라이제이션, 상호텍스트성

Ⅰ.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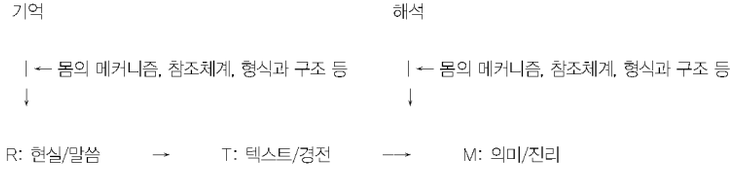
주지하듯, 2011년은 고려가 중국 송의 開寶版 大藏經을 모방하여 1011년에 초조대장경을 조성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다. 고려대장경은 송보다 뒤늦게 출간한 것이지만, 정확성, 체계성, 미적 완성도, 판목의 보존에 관련된 기술의 우수성 면에서는 가히 세계 최고의 위상을 누리고 있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고려대장경의 의미, 사상, 가치에 대해 21세기 오늘의 맥락에서 재조명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제까지 대장경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주로 경판의 정확성이나 보관의 우수성에 초점이 놓였고,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주로 서지학적, 실증적 연구에만 국한되었었다. 최근에 총체적인 시각에서, 경전만이 아니라 敎藏의 집성에 얽힌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의미, 초조대장경으로부터 교장, 그리고 재조대장경으로 이어진 고려대장경 조성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밝힌 연구가 나온 것은 다행이다.

그럼에도, 필자가 과문한 탓이지만, 21세기 오늘의 맥락에서 문화론적 의미를 해석하고 미래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는 없었다. 21세기 오늘은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현대에서 탈현대로, 아날로그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그러면 중세 농업사회에서 조성된 대장경이 1,000여년의 시공간을 지나 지금 여기에서 갖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가. 나아가 앞으로 대장경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문화론적 해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1)]

II. 기억의 碇泊과 부처님 말씀의 위상

〈모형1: 현실, 기억, 텍스트, 해석의 관계〉



1) 필자는 문화를 연기론적으로 정의한다. E.B. Tylor에서 C. Geertz에 이르기까지 서구 학자들의 문화 정의는 실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동쪽이 있어 서쪽이 있고, 나무가 풀과 관계 속에서 목질의 줄기를 가진 다년생의 식물이란 의미를 갖듯, 문화 또한 타자를 자연이나 야만으로 설정하고 이것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빚어지고 해석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에 "문화란 자연이나 야만과 구분되는 세계에서 구성원들이 세계를 나름의 체계와 코드로 해석하고 대응하면서 세계관과 상징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주동적, 잔존적, 부상적 세계관-의 구조와 상징체계 속에서 자신과 자연과 세계와 타인, 사회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소통하며 서로 조건이 되며 끊임없이 의미의 상호작용을 하고 이 의미의 인드라망 안에서 서로가 자신과 집단의 삶의 지향성에 부합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기억하고 전승하면서 서로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총체"로 정의한다.

인간은 오감과 의식, 전의식(pre-consciousness)과 비의식(not-consciousness), 무의식(unconsciousness)으로 느끼고 깨달은 공간과 그곳에서의 사건을 몸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시간이 작용하면서 그는 기억의 형식으로 이를 저장한다. 인간은 공간의 체험을 있는 그 자체대로 기억하지 않는다. 인간은 몸의 메커니즘, 자신의 참조체계와 이해관계, 형식과 구조, 이데올로기와 세계관, 타인과 관계에 따라 기억한다. 그러기에 기억은 파편이며 몸에 흔적으로 남는다. 인간은 이해관계나 타인과 관계,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에 따라 기억의 파편을 재구성하여 공간을 추상화하며 삶을 행한다. 공간의 기억이 존재의 집을 짓고, 공간의 흔적이 주체를 형성한다. 공간은 기억을 구성하고, 몸은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공간의 주름을 펴고 겹을 분석한다. 공간이 시시때때로 변하듯, 나의 삶도, 나라는 주체도 기억의 파편과 흔적에 따라, 공간 안에서 타인과 기억을 소통하는 데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건일 뿐이다. 그러기에 현실은 늘 다양한 기억투쟁이 전개되는 장이다.[2)]

현실은 투명하게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호나 이데올로기 등의 매개와 간섭을 통해 재현된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 자체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와 형식, 참조체계에 따라 기억한다. 해석 또한 텍스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difference)의 체계에서 형성된다. 실재 현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중 몇몇만이 현실이 형성한 세계의 의미를 읽

2) 졸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19세기의 '포의교집' · 일제시대의 '천변풍경' · 1960년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25집, 한국기호학회, 2009년, p. 51.

는다. 또 읽는 자 가운데 소수만이 이를 기억하여 텍스트로 재현(representation)한다. 그가 바로 쓰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재현한 텍스트는 시간이 개입함에 따라 흔적이 되고 수신자가 이 흔적들에서 어떤 질서를 발견하고 그 질서에서 의미나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흔적은 다시 텍스트로 변환한다.[3] 읽는 주체는 남은 흔적들을 단서로 하여 자신의 해석을 종합하여 현실을 재구하고 그에 담긴 의미를 추출한다. 여기서 현실은 있는 그대로 재현되지 않으며, 실재 현실과 읽는 주체가 재구한 현실은 늘 같지 않다. 유사하지만 다르며 차이를 갖는다. 의미 또한 텍스트에 실재하지 않고 읽는 주체의 해석을 통해 드러난다. 현실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 것은 기호, 세계관, 권력 및 이데올로기, 형식과 구조, 시간의 개입 내지 매개 때문이다. 해석의 과정에서도 세계관, 역사관, 권력 및 이데올로기, 형식과 구조, (미래의) 지향성이 개입하거나 매개하여 다양한 해석의 파노라마를 빚어내고 의미를 무한히 미끄러지게 한다.[4]

부처님의 말씀과 경전, 그리고 해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의 기억, 聖衆의 기억을 거쳐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다. 기억의 정박이 시작된 것이다. 이로부터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전승되던 기억과 그릇의 관계가, 사람 중심에서 그릇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5] 하지만, 필사본은 말씀의 전파에 취약하였고, 패엽경은 그릇 자체의 소실 가능성이 늘 현존하였다. 인쇄술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문자로 정박시킨 대장경 시대에 와서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그릇에 담기게 된다. 기억은 늘 왜곡되고 파편으로 남기에 부처님의 말씀, 아난의 기억, 성중의 기억, 팔리어 대장경, 범어대장경, 한역대장경, 티벳대장경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점점 시간의 거리만큼이나 말씀의 거리도 상존할 것이다. 팔리어 대장경은 부처님의 본래 말씀과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승철학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蜀板大藏經에서 출발한 한역대장경은 부처님의 본래 말씀과 시간적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경, 서역불교와 중국불교를 포함하여 대소승의 經律論, 고승들의 저술을 총망라하였다. 팔리어 대장경과 한역대장경에서 보이는 부처님의 말씀의 차이, 산스크리트어 원본과 한역 경전 사이의 번역 및 개념어의 차이, 위경논란, 논과 소 사이의 해석의 문제 등이 아직 논란거리다. 초기 불교의 편에 선 이들은 팔리어 대장경이 석존께서 설법하던 언어이고 시대가 가장 앞서니 부처님의 말씀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한역대장경의 편에 선 이들은 현존하는 팔리어 대장경이 한역대장경보다 후대의 것임을 내세워 반대의 주장을 한다. 그런 중에서도 한역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한데 모아서 잘 정박시킨 유일한 큰 그릇으로서 위상을 누리게 되었다.

그 한역대장경의 중심에 고려대장경이 있다. 타당한 이유가 많지만, 기억의 문제와 연관을 지었을 때 고려대장경이 갖는 가치는 무

3) 텍스트는 언어기호가 어떤 원리에 따라 짜여져 의미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기호다발을 뜻한다. 텍스트의 최소요건은 '짜여져 있다는 것'과 '의미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졸고,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화쟁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19집, 한국기호학회, 2006년 6월 30일. pp. 139-141.

5) 오윤희, 『대장경, 천년을 담는 지혜의 그릇』(서울: 불광출판사, 2011), p. 83. 이 책은 기존의 신화를 깨고 대장경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잘 갈무리하여 대장경 연구에 한 획을 그은 책이다. 필자도 대장경을 '그릇'으로 비유한 것을 비롯하여, 이 책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

엇인가. 무엇보다 그것이 '온전하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대장경이라는 점이다.[6] 촉판대장경이 1,076부 5,048권을 수록하였다면,[7]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1,514종, 81,350판, 162,700면을 새겼다.[8] 이 대장경이 발간되기 이전의 모든 편집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동아시아 불교문헌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9] 초조대장경은 역사상 두 번째로 조성된 목판대장경이고, 팔만대장경은 송나라의 대장경과 요나라의 대장경, 금나라 대장경 등에 이어 새겨진 목판대장경이다.[10] 순서는 뒤지지만 온전하게 현존하는 것은 팔만대장경뿐이다. 더구나 그것은 '만국에 견줄 데가 없는 완전한 경본'이다.

> 당 · 송 · 원의 세 나라의 대장경들이 오래 전에 우리 땅에 들어와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지역 명산고찰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경본들은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완전하지는 않다. 또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당 · 송 · 원 나라의 20여 종의 대장경 외에 조선교정각판장본이 있다. 우리나라 여러 지역, 십여 사찰에 남아 있어 간간이 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일뿐더러 완전함의 극치이다. 만국에 견줄 데가 없는 완전한 경본이다. …… 그 넓고 크고, 아름답고 빼어난 과업의 공적은 말로써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은 조선의 교정대장경본이 만국에 견줄 수 없는 완전한 판본인 까닭이다.[11]

위의 지적처럼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경전인 고려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기억하여 정박시킨 것으로서는, 부처님의 말씀과 시간적 거리가 가장 가깝다. 이는 부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권위를 갖는다. 2,555년 전부터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고, 여러 형태로 기억에 의해 전승되다가 1천 5백 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그 기억이 오롯이 정박된 고려대장경이 있고, 그 뒤 1,000년 뒤인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의 實相이 정녕 무엇인지 모르지만, 고려대장경에 기록된 문자와 글이 그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에 담긴 진리를 되새기는 것이다.

주지하듯 팔만대장경은 『大正新修大藏經』의 底本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 한글 고려대장경을 인용하자는 운동도 미약하나마 벌어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즐겨 인용되고 있는 것은 『대정신수대장경』이다. 세계의 불자들과 학자들이 이 대장경을 부처님의 말씀과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전을 인용할 때마다 이를 이용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팔만대장경이 그 저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고려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을 온전한 한 그릇에 정박시켜 부처님 말씀의 오독과 그릇된 해석에 단단한 울타리를 쳤다. 고려대

6) 같은 책, p. 132.
7) 유부현, 「高麗大藏經의 구성과 底本 및 板刻에 대한 연구」,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硏究所, 金剛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2011년, p. 686.
8) 강순애,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제22권 제1호, 2011년, p. 31.
9) 로버트 버스웰, 「守其-고려대장경 편집과 경전비평사에서의 그의 가치」,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硏究所, 金剛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2011년, p. 588.
10) 오윤희, 같은 책, p. 132.
11) 「獅谷白蓮社忍澂和尙行業記」, 『淨土集全書』제18권, pp. 28-30, 오윤희,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2011년의 의미」, 『民族文化論叢』4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년, p. 477. 재인용.

장경이 없었다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판본의 경전과 논소를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맞는지 맞지 않는 지 기억투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는 와중에 부처님의 말씀은 심히 왜곡되어 전달되었을 것이다. 팔리어 경전과 한역 경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서로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팔만대장경과 이를 저본으로 한 『대정신수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에 가장 근접한 經律論으로서 기억투쟁을 거의 종결시킨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알기 위해선 찾기 쉽고 읽기 쉬운 신수대장경에서 검색을 하고, 이로도 의심이 가면 고려대장경을 찾아 대조한다. 초기불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팔리어대장경을 찾아 그것에 방점을 찍고 보겠지만, 한역대장경이 팔리어 대장경보다 더 부처님 말씀에 가깝다고 여기는 이들은 고려대장경에서 확인하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라 생각한다. 물론 부처님의 '진짜 말씀'은 대장경들 '사이에' 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말씀에도 정녕 이를 수 없지만, 대장경 사이의 상호텍스트적인 읽기를 통해 그에 다가갈 수는 있다.

어찌 되었든, 고려대장경 속에서 1천 5백년이란 기나긴 시간은 주름을 접으며 석존 당시의 현재로 되돌아간다. 우리는 고려대장경을 읽을 때마다 맨 앞에서 "如是我聞" 네 글자를 반복하여 보며 석존이 제자들이나 당시 사람들과 대화하던 그 맥락으로 되돌아가서, 그 맥락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에 담긴 진리를 찾는다. 고려대장경의 1차 시제는 늘 석존 당시의 현재다. 2차 시제는 그 진리를 오늘 나의 맥락에서 내 마음에 새기기에 지금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현재다.

이 순간 우리는 九世가 하나로 圓融하는 경지에 이른다. 현재의 과거는 고려대장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인연을 헤아리는 일이요, 현재의 현재는 고려대장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말씀에서 의미를 찾는 이 순간이요, 현재의 미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마음에 담아 달라질 내일이다. 과거의 과거는 無始無終한 때부터 부처님이 인연이 있던 일이며, 과거의 현재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고려대장경의 문구를 석존 당시의 맥락에서 석존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요, 과거의 미래는 그 말씀이 아난과 수많은 이들의 기억을 거쳐 고려대장경에 새겨지는 일이요, 미래의 과거는 고려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이 오늘부터 내일을 지나 계속 이어지는 일이요, 미래의 현재는 그 말씀을 읽고 다시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며, 미래의 미래는 부처님 말씀이 재차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아우러져 다시 달라질 먼 미래다. 이렇듯,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九世를 고려대장경에 담겨있는 진리가 인연에 따라 會通하고 있으니 이것이 十世이다. 구세들은 서로 어울리면서도 뒤섞이지 않는다. 그러니 끝이 없는 무량겁이 곧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곧 무량겁이며, 구세, 십세가 서로 서로 부합하되 아무런 뒤섞임 없이 따로 따로 이루어진 것이다.[12]

구세의 원융 속에서 경전에서 어떻게 진리를 해석할 것인가. 첫째, 가장 먼저 서지학적 연구를 통해 원전을 결정한다. 둘째, 그리 결

12)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全書』(이하 『韓佛全』으로 약함)(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제2권, 1-上, "九世十世互相卽 仍不雜亂隔別成"을 이에 맞추어 풀어서 해석하였다.

정된 원전이라도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경전과 경전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의 읽기를 통해 문자텍스트를 만든다. 셋째, 문자 텍스트의 어휘와 문장을 읽으며 사전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의미를 해석한다.[13] 넷째, 문자텍스트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 심층적 의미를 해석한다. 다섯째, 그 의미를 석가모니께서 말씀 하시던 맥락(context)에서 해석한다.[14] 여섯째, 마지막으로 오늘 내가 놓인 맥락에서 재해석한다. 석가모니의 말씀과 경전텍스트와 해석은 일치하지 않는다. 언어 자체의 한계성, 참조체계, 이를 인식하고 느끼는 인간 몸의 메커니즘, 구조와 형식, 이데올로기, 코드체계 등에 따라 차이를 갖는다. 이 차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며, 진리 또한 그 '사이에' 있다.

Ⅲ. 재현의 위기 시대에서 원본의 위상과 탈정전화

21세기는 원본이 사라지고 복사본이 이를 대신하고 현실을 가상, 혹은 시뮬라시옹이 대체하는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 시대다. 디지털사회에서 '매트릭스적 실존'은 이미 현실이다.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가상세계는 이미 우리 현실의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보드리야르는 "디즈니랜드는 '실제의' 나라, '실제의'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거기 있다."[15]라고 말한다. 영화나 드라마가 현실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형성된 의미와 이미지대로 사랑을 하고 일상을 영위한다. 미디어와 하이퍼미디어의 세계에서 현실은 시뮬라시옹으로서 존재한다. 이는 원본과 현실을 추방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텅 빈 기호' '지시대상이 없는 코드'가 지배하는 사회다. 가상세계는 가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는 전략과 전술을 수정하고 선수나 대통령 후보자를 교체한다. 원본은 복사본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상은 이미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16]

재현의 위기 시대에서 고려대장경은 시뮬라시옹이 침해할 수 없는 원본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갖는다. 플라톤의 프레임을 응용하면, 고려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은 이데아의 자리에 놓이고, 침대 자리에 이를 모방하거나 해석한 각각의 대장경과 논소들이 놓이게 되며, 침대그림의 자리에 그 장경을 모방하거나 해석한 불서들이 놓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원본은 오로지 고려대장경뿐이다.

앞으로 디지털 시대가 더욱 진행되어 가성성이 증대될수록, 고려

13) "말을 바꾸었다."라는 문장에서 '말'의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다르다. 철수와 이야기했다는 문장이 앞에 나온다면 "전에 한 말과 다른 말을 하다."이고, 경마장 등이 나오면 "동물 말을 바꾸어 탔다."이며, 싸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싸전에서 말을 속여 팔았다."의 뜻이다. 이처럼 한 낱말의 의미는 다양한데, 그를 1차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문맥이다.

14) "달을 그렸다."라는 간단한 문장도 미술시간의 맥락에서는 "지구의 위성을 그림으로 그렸다."이지만, 산수시험을 보고 난 후에 엄마가 아이에게 점수를 물어보는 맥락에서는 "0점을 맞았다."이며, 한 여인이 오랜 동안 고갯마루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온 맥락에서는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렸다."이다. 이처럼 같은 의미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15) *Jean Baudrillard,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1992), p. 40.

16) 졸고, 「미학에 있어서 재현의 문제: 재현의 위기론의 타당성과 한계」, 『미학 · 예술학 연구』22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년, p. 147-148.

대장경 판본은 원본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에서 어떤 이가 다양한 양식의 경전 문구를 접하였을 때 그것이 부처님 말씀과 부합하는가 맞추어 보려면 인터넷에서 고려대장경을 검색하여 찾아볼 것이고, 이것으로도 의심이 가면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http://kb.sutra.re.kr)에서 해인사 팔만대장경 목판본을 디지털화한 것과 대조할 것이며, 그로도 의문이 남으면 직접 해인사 장경각을 찾아 해당 목판과 대조할 것이다.

앞으로 고려대장경이 신수대장경 이상으로 원본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다양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우선 경전별, 편목별, 단락별 분류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키워드와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또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 셋째, '행복, 평화, 나눔' 등 현대인이 추구하는 중요 가치에 맞게 경전과 관련 문장을 재배열한다. 넷째, 경전의 많은 부분을 디지털화, 영상화하고 이를 분류하여 문자이미지와 결합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미소를 지으며 숲가를 거니는 장면을 클릭하면 행복에 관련된 부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대장경을 활용하고 이에 참여해야 한다.

21세기에 와서 고려대장경은 다양한 복사본을 낳는 샘의 구실을 할 것이다. 원본은 끊임없이 복사본을 만든다. 대중의 관심도가 복사본을 만드는 1차적 요인이지만, 역설적으로 원본의 권위가 높을수록 많은 복사본을 생성한다. 원본의 권위와 아우라가 복사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복사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고려대장경은 신수대장경을 낳았고, 전자불전을 생성하였으며, 디지털화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대장경, 곧 대장경 2.0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의 대장경 1.5는 사용자가 대장경을 검색하고 보는 차원에 그쳤다면, 대장경 2.0은 참여, 공유, 개방을 통해 과거의 대장경이 현재의 대장경으로 거듭나 새로운 문화컨텐츠의 생산으로 이어져 무한하게 확장되는 미래의 대장경이 되는 것이다.[17] 이와 더불어 원본을 바탕으로 많은 불교 관련문헌과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重重無盡의 하이퍼텍스트로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이제 인터넷만이 아니라 페이스북과 스마트폰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40자 금강경』 같은 다양한 버전의 경과 론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것의 속도와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일 것이다.

물론, 허인섭 교수의 주장대로, 유비쿼터스 대장경 2.0에 대해 낙관만 할 수 없다. '전문화 과정이 배제된 대중화는 허구'이다.[18] 전문화 없는 대중화는 진리를 왜곡할 수 있고, 대중화 없는 전문화는 그들만의 리그로 머물 것이다. 전문화와 대중화를 조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쉽고 아름다운 한글문장으로 번역하고 이를 고려대장경과 연계하고, 틱낫한 스님이 했던 것처럼 원전에 충실하되 쉬운 메타포(metaphor)와 메토니미(metonymy)를 활용하고, 오늘날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엮어주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7) 이재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장경-대장경 2.0은 가능한가?」,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硏究所, 金剛大學校 佛敎文化硏究所, 2011년, p. 915.

18) 허인섭, 「'고려대장경,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가치-문화론적 해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고려대장경 천년의 재조명-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의미』, 불교학연구회, 2011년, p. 146.

고려대장경의 정전화와 탈정전화(decanonization)도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중세는 성경의 진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한 시대라면, 현대는 이를 정전으로 끌어내려 인간의 입장에서 그 진리를 탐구한 시대였다. 탈현대는 정전의 권위에 도전하고 이를 해체하는 시대다. 고려대장경도 정전으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 진리성을 캐는 작업이 행해졌지만, 앞으로는 서발턴(subaltern)의 입장, 페미니즘, 제3세계적 시각에서 이에 담겨 있는 신화나 이데올로기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IV. 聖俗一如의 메신저

인간에게 성스러움과 비속함이 공존한다. 탐욕에 물들어 더 많은 돈과 향락과 권세를 추구하다가도 이를 버리고 더 숭고한 세계를 향하기도 한다. 그 앞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 성스런 세계가 있고 세속적인 세계가 있다. 고대 사회의 인간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하늘을 우러렀다. 그들은 하늘에 신이 있다고 보고 하늘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오고가는 기능을 하는 새와 달과 별, 더 나아가 나무와 산까지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 삼아 숭배하였다. 신이 좀더 추상화하고 체계화한 이후, 사람들은 세속의 일상에서 벗어나 지극히 거룩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 하였다.[19]

19) 산신신앙에 대해 산이 인간에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신앙이 되었다는 경제설, 산의 웅대함과 위압감이 신앙화하였다는 공포설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산신신앙이 형성된 근본적 동인은 산이 지상계와 천상계의 중개자라는 은유 때문이다. 단군신화에서 삼국유사의 숱한 산신관련 설화, 산신에 관련된 지역의 설화를 보면, 신은 산을 타고 내려와 지상을 다스리거나 영향을 주다가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간다. 경제적 요인이나 무의식적 두려움이 전혀 작용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산이 지상에 뿌리를 두고 하늘 높이 솟아 있다는 특성이 신앙화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새와 나무 등을 신앙화하는 천조신앙, 신목신앙이 발달하고 별과 달도 신격의 하나라는 점이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공통점은 땅과 하늘을 잇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천박한 세속의 일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세계로 나아가 하나가 되려는 집단적 행위는 의례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뒤르켕은 의례를 "행동의 규율로서 성스러운 사물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20]라고 정의한다. 그의 정의처럼 의례는 인간이 비천한 세속의 일상에서 벗어나 성스런 세계로 나아가서 거룩한 존재와 만나 聖俗의 일치를 이루려는 조직적이고 정형화한 종교적 실천체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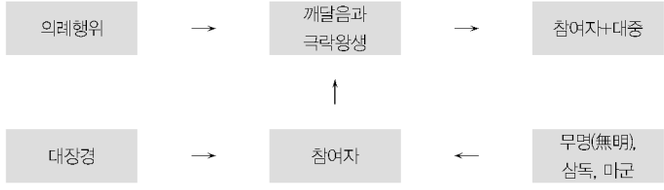
불교 또한 궁극의 목적은 욕망과 집착으로 인하여 七苦로 가득하여 불난 집과 같은 세속에서 해탈하여 부처가 되려는 것이다. 眞俗不二란 표층적으로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층적으로 읽으면, 無明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고 고를 벗어나 해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한 부처됨을 미루고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그 순간 나 또한 부처가 됨을 이르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은 聖俗의 합일을 매개하는 매체다. 고려대장경과 관련된 여러 불교의례, 특히 경판을 머리에 이고 해인도나 법성도를 도는 정대불사와 같은 의례를 하나의 서사로 상정하고 놓고 그레마스

20) *Emile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 J. W. Swain,(New York: Free Press, 1965), pp. 52-53.

의 행위소 모형(actantial model)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21]

〈그림1〉 고려대장경 관련 불교의례의 행위소 모형



위는 고려대장경에 관련된 불교의례를 행위소 모형으로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 주체는 참여자다. 그가 원망하는 대상은 자신의 깨달음과 극락왕생이고, 결국 궁극의 목적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가 대상을 달성하는 데 방해하는 적대자는 무명과 삼독, 그리고 마군이다. 대상을 성취하는 데 돕는 조력자는 대장경, 그 뒤에 숨은 부처님이다. 참여자가 대상을 성취하도록 다리를 놓은 발신자는 의례행위이고, 참여자가 대상을 성취한 것을 누리도록 하는 자는 참여자 자신이고, 더 나아가 중생이다.

하단의 가로축은 능력의 축이다. 여기서 주체와 조력자의 힘을 합친 것과 적대자의 힘 사이에 발생하는 힘의 차이가 대상의 성취여부를 결정한다. 참여자는 대장경 판목의 신비적 권능을 인정할수록 대상의 성취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상단의 가로축은 소통의 축이다. 참여자는 고려대장경에 관련된 의례를 통하여 깨달음과 극락왕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수신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참여자 자신이지만, 2차적으로는 중생이다.

참여자의 믿음, 참여도가 높을수록 의미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거꾸로 의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믿음은 깊어진다. 의미작용은 1차적으로는 참여자의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2차적으로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이를 통해 더욱 의미작용은 다채롭게 발생하고 참여자들은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상징과 의미의 공유는 생각의 프레임(frame)을 결정하여,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 유사하게 만든다. 특히 대중이 의례에 참여하여 고려대장경에 담긴 의미를 깨달을수록,[22] 대장경에 관련된 스님과 고려 민중의 지극한 신심을 자기화할수록, 너와 나의 구분을 무너트리고 我慢에서 빨리 벗어나기에, 대중들은 불교의례를 통하여 자아와 타자의 공존을 추구하

21) 여기서 세로축은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욕망의 축이다. 상부의 가로의 축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대상을 전달하는 전달의 축이다. 하부의 가로 축은 주체를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능력의 축이다. 주체(subject)는 대상을 추구하거나 원하는 존재, 인간의 욕망과 관련시킬 때는 그 욕망을 실현하는 자이다. 대상(object)은 주체가 추구하는 객체,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이다. 발신자(sender)는 대상을 주체와 만나도록 이끄는 자, 욕망을 일으켜 발하는 곳이다. 수신자(receiver)는 주체가 대상을 구현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자, 실현된 욕망을 누리는 자이다. 조력자(helper)는 주체가 대상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 욕구를 강화하는 자이다. 적대자(opponent)는 주체가 목적을 구현하려는 행위를 방해하고 주체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 욕망에 대한 억압, 꿈에 대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표상한 자이다[A. J. Greimas, *Structural Semantics*, (tr.) Daniele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1966), pp. 197~221].

22) 물론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주로 의미작용을 한다. 하지만, 이 의례에서만큼은 고려대장경에 관련된 기억이 주름들이 펴지면서 의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대중들과 어울려 함께 의례행위에 참여하면서 의미이 공유가 끊임없이 전개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게 되고, 참여자들은 자연스레 탈구조공동체(communitas)를 지향하게 된다.

의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에 감성이 스며들면서 깨달음을 집단화한다. 의례에 참여하면 누구나가 평소에 비하여 '정서적 에너지'가 증대된다. 참여자들이 함께 판목을 머리에 이고 돌면, '정서적 에너지'가 서로 고양이 된다. 여기서 참여자들의 정서를 가장 잘 고양시키는 요인은 대장경을 조성하던 고려 시대의 맥락이다. 주지하듯, 고려인은 거란의 침략에 맞서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 염원으로 전쟁의 와중에 이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장경을 만들었다. 이런 역사를 재현하면서 참여자는 당시의 맥락 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빠져들수록 정서는 고양된다. 이 고양 속에서 대중들은 평소에 알지 못한 것을 깨닫고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환희심에 이른다. 이 깨달음은 자신에 머물지 않고 중생구제로 회향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성스런 영역은 남을 것이다. 아니, 가상성이 증대되는 디지털시대일수록 성스런 세계를 향한 인간의 발걸음은 늘어날 것이다. 성스런 세계로 다가가려는 인간의 마음이 있을 때마다 고려대장경은 부처님 말씀의 지위를 가지고 그에게 이르는 조력자의 기능을 할 것이다.

Ⅴ. 일방향소통에서 쌍방향소통의 텍스트로

올드미디어는 감독이든 연출가든 시인이든 텍스트를 만든 자의 메시지를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독하도록 강요하는 시대의 매체였다. 독자는 책을 읽으며 작가의 의도를 엿보려 하였다. 라디오의 청자나 텔레비전의 시청자는 자동차 안이나 거실에서 방송을 듣고 보며 텍스트에 담긴 제작자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야 하였다. 대중문화만이 아니다. 대통령후보의 연설도, 유명 강사의 강의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올드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받기에 이들 텍스트에 대해서도 일방적 해독은 마찬가지였다. 물론 올드 미디어에서 수용자가 나름대로 해독할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드미디어의 일방통행 구조는 일상영역에까지 침투하여 수용자의 해독의 자율성이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켰다. 일방통행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일상화하면서 대중의 일상생활의 영역마저 일방통행의 메커니즘이 지배하게 되었다.

반면에,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소통의 매체라는 점이다. 뉴미디어 시대에서 수용자는 제작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동적 대중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독하며, 이에서 더 나아가 발송자 또는 제작자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스스로 제작자가 될 수도 있다. 그는 컴퓨터 채팅을 하듯이 상대방이 보낸 텍스트에 대해서 자신의 해독과 가치평가, 다시쓰기를 곁들여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상대방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 인터넷에 오른 텍스트에 손질을 하여 다시 하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송출된 수천 수만 개의 채널 가운데 몇몇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다음 이를 조합하여 자신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고려대장경 또한 20세기까지는 올드미디어로서 일방향 소통을 하였다. 대중들은 대장경에 담긴 부처님 말씀, 대장경 조성에 얽힌 이야기들의 의미를 따라잡는데 급급하였다. 하지만, 대장경의 디지털

화가 추진되면서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디지털화는 2009년 5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9일까지 "팔만대장경 경판, 판전, 판가에 대한 DB기초 작업/DB구축/3차원 영상"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1차 사업을 마무리하였다.(http://www.i80000.co.kr)[23] 현재 추진 중인 '초조대장경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국내의 소장본 2천여 권에 대한 조사, 촬영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대마도에 소장된 500여 권의 『대반야경』을 포함하면 3천여 권에 가까운,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4]

물론, 아직 활발하게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관련 자료들을 3D로 영상화하고, 네티즌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통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이 설정되고 있다. 앞으로 쌍방향 소통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 곧 대중이 자유롭게 대장경에 관한 하이퍼텍스트를 생성하는 사업, 유비쿼터스 대장경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21세기에는 고려대장경은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쌍방향의 소통을 할 것이다. 여기서 대장경과 대중의 경계는 무너진다. 대중들은 스스로 하이퍼텍스트를 생산하여 이를 소셜 네트워크망을 통해 전할 것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 또한 이를 조금씩 변용하여 다시 소셜 네트워크망에 뿌릴 것이다. 자연스럽게 대장경에 담긴 부처님의 말씀은 일상의 삶에서 의미를 만들고, 나아가 삶의 의미의 전환을 이룰 것이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쌍방향소통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쌍방향소통에는 외적 쌍방향소통과 내적 쌍방향소통이 있다. 외적 쌍방향소통은 발신자가 나라면, 수신자는 타인, 대중, 네티즌이다. 한 사람이 경전의 문구나 이를 나름대로 해석한 텍스트를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올리면 그는 1 對 多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퍼지고 무수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를 다시 가공, 포장, 재해석, 패러디하여 하이퍼텍스트를 생산하여 퍼트리고 리트윗한다. 개개의 한 사람이 중심인 노드를 형성하여 퍼져나가기에 이는 구슬 하나, 하나가 삼라만상을 비추고 있고 구슬끼리 서로 비추어 무한대의 삼라만상이 프락탈(fractal)을 형성하는 인드라망 구조와 흡사하다. 여기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는 가운데 내적 쌍방향소통이 일어난다. 내적 쌍방향소통이란 그 텍스트를 통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다. 경전의 문구 안에 있는 부처님이 수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면, 수신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어느 순간에는 깨달음에 이르러 실제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부처님을 만난다.

VI. 민족자존의 긍지/국수주의적 신화에서 차이와 혼성성의 의미 부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록된 합천 해인사의 고려 팔만대장경 경판에는 무려 5233만 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다. 6시그마를 기준으로

23) 강순애, 앞의 논문, p. 33.
24) 오윤희, 앞의 논문, p. 494.

하면 178자까지의 오류는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경판에는 오자나 탈자가 전혀 없이 팔만대장경의 무결점을 자랑한다. 또 그 많은 글자가 기본 서체인 구양순체를 벗어나지 않고 마치 한 사람이 쓴 듯 한결같이 고르고 정밀하여 예술적 가치도 높다. 신의 경지라는 6시그마 수준을 초월한 품질관리의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25]

위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팔만대장경에 관한 상식이다. 여기에 더하여 팔만대장경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많았다. 고려대장경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이라는 것은 국수주의가 빚은 착각이고, 오자가 한 자도 없다는 이야기는 신화일 뿐이다. 오윤희 선생의 지적대로, 고려대장경은 송나라의 개보대장경을 엎어놓고 그대로 새긴 것이며,[26] 촉판대장경과 200년 이상의 거리가 있다.

팔만대장경은 민족 자긍심의 바탕이었다.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내전을 겪은 신생국 민족에게 팔만대장경은 한글, 석굴암, 남대문 등과 함께 민족적 자긍심을 키우는 구체적 물증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은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국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 싣고 미디어를 통해 전파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불교와 종단 또한 대체로 무지했고, 간혹 알았다 하더라도 한국불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이런 신화들을 수정하지 않았다.[27]

25) 김영표, 「팔만대장경과 6시그마」, 『국토』, 243호, 국토연구원, 2002년 1월, p. 4.
26) 오윤희, 앞의 책, p. 130.
27) 또 한 편에서는 종단과 권력이 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신화들을 일부러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권력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체제의 정당성 확보 및 국민 동원의 논리로 이용하고, 종단은 이를 용인하면서 권력의 비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화는 신화일 뿐이다. 신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현혹되지만, 그를 인식하면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된다. 고려대장경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에도 如實知見은 필요하다. 제국이 아직 야만적인 폭력과 착취를 일삼고, 제국의 가치와 신화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한,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주의는 유효하다고 본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에 닫힌 민족주의는 고립을 자초하고 퇴행을 야기할 뿐이다.

근본적으로 문화란 우열이 아니라 차이다. 대장경 문화도 상대적이다. 우리와 남, 대승과 소승, 팔만대장경과 다른 대장경 등 어느 한 편에 서서 다른 것을 야만으로 치부하고 자기의 것을 문화라 하지만, 다른 편에서 바라보면 그 역도 항상 가능하니, 상대적으로, 연기적으로, 차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장경은 한 나라의 단위에서는 민족적 긍지감을 높일 국력과 문화와 지식권력의 상징이지만, 동아시아 지평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식 교류와 소통의 산물이자 세계화 시대에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전범이다. 고려대장경은 아시아 전역에 유통했던 모든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당대의 뉴미디어라 할 수 있는 목판 인쇄술을 통해 출간하려 했던 대규모 사업의 결정체이다.[28] 의천의 경우 宋, 遼, 高昌國 등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교정의 전통과 결과들을 공유했다.[29] 주지하듯, 초조대장경은 중국 송의 개보판(開寶版) 대장경을 모방하되 다른 대장경

28) 오윤희, 같은 논문, p. 494.
29) 오윤희, 같은 논문, p. 484.

을 참조하였다. 송의 대장경을 모방하였지만 그보다 훨씬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미적인 판본을 만들었으며, 1,00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목판본이 깨끗하게 보존될 정도로 최고의 테크놀로지로 만든 당대 최고 첨단기술의 집대성이다. 대장경은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다시 중국으로 역수출되었다. 세계와 소통하며 세계의 수준을 따르면서도 고유의 독자성과 가치와 의미를 창조하고, 이 차이는 다시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팔만대장경이 최초의 장경이라는 것은 신화이지만, 에라스무스보다 2세기 가량 앞선 '크리티컬 에디팅(critical editing)'의 전범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고려대장경은 한 권당 500~1,000자 정도나 오자가 있던 송의 장경을 모본으로 하되, 비판적 시각에서 오자를 바로잡고 창조적으로 디자인한 크리티컬 에디팅이다. 대장경의 크리티컬 에디팅을 주도한 학승인 守其는 현대 원전 비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전의 내적 증거들을 충실히 지킨 뛰어난 편집자로서 평가받을 만하다.[30]

대장경이 동아시아 지식 교류의 산물임에도 대장경의 연구는 동일성의 패러다임, 내셔널리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제 차이와 혼성성(hybridity)의 관점에서 각 나라의 대장경의 차이,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과 정보가 서로 소통하며 뒤섞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연구하여 고려대장경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지평에서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30) 로버트 버스웰, 앞의 논문, pp. 601-602.

VII. 맺음말

신라 제 35대 景德王(?~765년, 재위: 742년~765년) 때 康州(진주)에 사는 노비 郁面은 彌陀寺에 주인인 貴珍을 모시고 갔다가 절의 마당에서 승려를 따라서 염불을 하였다. 귀진이 종이 감히 주제넘는 짓을 한다고 미워하여 매일 벼 두 섬씩 내어주며 하루에 다 찧라 하였다. 욱면이 저녁 무렵까지 다 찧어놓고 절에 가서 염불하되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노끈으로 두 손바닥을 뚫는 고행을 하며 염불을 하여 마침내 부처가 된다.

욱면이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가 되는 것에 버금가는 기적을 전쟁의 극단 상황에서 고려의 스님과 민중이 어울려 지극한 불심으로 이룬 것이 고려대장경이다. 대장경의 부처님 말씀만이 아니라 고려대장경을 만들며 얽힌 이야기 자체가 또 하나의 (경전) 텍스트다. 이는 시간을 뛰어넘어 1,000년 뒤 오늘에도 풍성한 의미와 벅찬 감동을 준다. 이는 경전에 대한 부재-텍스트가 되어 현전-텍스트인 경전과 서로 不一不二의 연기관계를 형성하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텍스트성의 의미를 생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의미들은 우리 삶에 지표를 제시하고, 어느 때는 삶을 전환하는 지평을 펼칠 것이다.

참고문헌

·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韓國佛教全書』(서울: 동국대출판부. 1979. 제2권.

· 강순애. 「세계기록유산 고려대장경 및 제 경판의 디지털화와 대중화」.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제22권 제1호. 2011년.
· 김영표. 「팔만대장경과 6시그마」.『국토』. 243호. 국토연구원. 2002년 1월.
· 로버트 버스웰. 「守其-고려대장경 편집과 경전비평사에서의 그의 가치」.
·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研究所. 金剛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2011년.
· 오윤희.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2011년의 의미」. 『民族文化論叢』40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년.
· 오윤희. 『대장경. 천년을 담는 지혜의 그릇』(서울: 불광출판사. 2011).
· 유부현. 「高麗大藏經의 구성과 底本 및 板刻에 대한 연구」.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研究所. 金剛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2011년.
· 이도흠. 「미학에 있어서 재현의 문제: 재현의 위기론의 타당성과 한계」. 『미학 · 예술학연구』22집.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년.
· 이도흠.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19세기의 '포의교집' · 일제시대의 '천변풍경' · 1960년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25집. 한국기호학회. 2009년.
· 이도흠. 「역사 현실의 기억과 흔적의 텍스트화 및 해석-화쟁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19집. 한국기호학회. 2006년 6월 30일.
· 이재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대장경-대장경 2.0은 가능한가?」. 『大藏經: 2011年 高麗大藏經 千年 記念 國際學術大會』. 藏經道場高麗大藏經研究所. 金剛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2011년.
· 허인섭. 「'고려대장경. 현재의 의미와 미래의 가치-문화론적 해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불교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고려대장경 천년의 재조명-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의미』. 불교학연구회. 2011년.

· Baudrillard, Jean. *Simulacres et simulation*. 하태환 옮김.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1992).
· Durkheim, Emile.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r.) J. W. Swain.(New York: Free Press. 1965).
· Greimas, A. J. *Structural Semantics*. (tr.) Daniele McDowell. Ronald Schleifer and Alan Velie(Lincoln: Univ. of Nebraska Press. 1966).

A Cultural Interpretation on the Current and Future Worth of the Tripitaka Koreana

Lee, Do-heum
Hanyang University

I interpreted the current and future value of the Tripitaka Koreana from a stand-point of cultural studies. Buddha's words had been recorded in a form of the tripitaka after passing through the memory of Ananda and the Sacred Multitudes. The Chinese Tripitaka is the only great container which anchored of all the memories of Buddha's words. The Tripitaka Koreana is the oldest one of existing Tripitakas printed from woodblocks. Buddha's words do not agree with tripitaka-text and interpretation. The memory is influenced by the limit of language, reference system, mechanism of human body, form and structure, ideology, and code. These factors make differences. The difference between meaning and truth is 'between' differences.

The Tripitaka Koreana is the original text of Buddha's words in which simulation can not substitute in the age of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It will play a role of the original which produces numerous copies.

The Buddhist ritual for the Tripitaka Koreana functions as the messenger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The more the stories and facts abou tthe Tripitaka Koreana are internalized in the mind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ritual, the faster they free themselves from ātmamāna. So, they pursue co-existence between self and others, and head toward communitas.

In the 21st century, the Tripitaka Koreana is supposed to be interactive media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 There is no boundary between sender and receiver, and numerous hyper-texts can be transmitted, interpreted and produced ceaselessly, as though on an internet.

We must get rid of myth about the Tripitaka Koreana, and look and study it in the light of difference. The Tripitaka Koreana is a product of the communic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a model of glocalization in East Asia.

Not only Buddha's words are in the Sutra but also the stories about the Tripitaka Koreana are the other tripitaka-text. This plays a role of absence-text for the sutra-text as a presence text, and it generates inter-textual meanings in the relation of inter-dependant origination. These meanings will shed light on our lives, and open a new horizon.

Key Word

Tripitaka, Tripitaka Koreana, cultural studies, the anchoring of memories,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simulation, glocalization, inter-textuality

투고일자 2011.11.25 | 심사일자 2011.12.7 | 게재확정일자 2011.12.16

고려대장경의 해인사 이운 시기와 경로*

한상길
동국대학교

Ⅰ. 머리말
Ⅱ. 이운의 배경과 과정
Ⅲ. 이운 시기
Ⅳ. 이운 경로
Ⅴ. 맺음말

* 이 논문은 2011년 8월 10일 강화군과 강화역사문화연구소 등이 주관한 「고려대장경과 강화도」 학술회의(강화역사박물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